

실로암 한인 침례 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SBC)

August 02, 2026, 10:30 a.m.

Ordinary Times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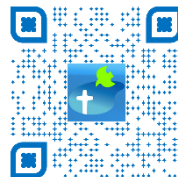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siloamkbc.org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www.siloamkbc.org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338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Nearer, My God, to Thee

C1275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Jehovah Is Your Protector

C1017 내 평생 사는 동안 I Will Sing unto the Lord

대표 기도 The Prayer of the People 김옥금 집사 Deaconess Ok Kim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 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창세기 Genesis 32:22-31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하나님과 씨름 Wrestling with God

III 화답 Response

성찬식 The Holy Communion다같이 All Together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신도 사무 총회

- 예배 장소 이전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교회를 위하여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
- 자녀들
-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 여행하는 분들
- 권세자들

THE FIRST LESSON 창세기 GENESIS 32:22-31

- 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박 나루를 건널새
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시편 PSALM 17:1-7, 15

1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4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 하나님이며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본문 함께 살펴보기

바울은 로마서 8 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포한 후, 9 장에서 갑자기 자신의 깊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곧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시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드러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맡기셨으며,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더욱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 오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보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슬픔을 보여 줍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동시에 사람들을 향한 깊은 긍휼을 품게 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1)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위해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파합니다. 그는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그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2)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스라엘은 양자 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권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3)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분

5 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우리는 가족과 친구, 이웃의 영적인 상태를 얼마나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바울의 눈물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 없는 진리는 쉽게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거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매일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단순한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망과 예배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 이처럼 깊은 슬픔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이번 주에 복음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 줄 수 있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14:13-21

-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